

## 경험의 재구성으로서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

### -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중심으로 -

최 미 숙\*

#### I. 머리말

『열하일기』는 1780년 청나라 건륭 황제의 칠십 수(壽)를 축하하기 위한 외교 사절단에, 그 일원으로 참가했던 박지원이 자신의 중국 견문을 기록한 글이다. 『열하일기』에는 「도강록」을 위시하여 26편의 글이 실려 있는데 「도강록」에서부터 「환연도중록」까지는 기행일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뒷부분은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열하일기』에 나타난 박지원의 글쓰기는 당대 다른 문인의 그것과는 달리 매우 독특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적인 경험으로부터 항상 새로운 사고를 이끌어내고 문제제기를 하며, 그 문제제기의 해결 과정을 새로운 글쓰기 방식으로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지원이 썼던 『열하일기』는 대부분이 중국에서 경험했던 일에 대한 기록물 이면서도 단순한 기록물 그 이상을 넘어선다.

본고는 박지원이 열하를 구경하면서 겪은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서술하는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열하일기』가 박지원 개인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그 글쓰기의 과정이 경험을 재구성하는

---

\* 인천 교대 강사

과정이었다는 점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할 것이다.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을 동원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경험 내용을 서술하면서 어떠한 심리적 내용이 형성되었으며, 그것은 글에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살펴볼 것이다.

본고는 일기체 서술 형식을 취하고 있는 『열하일기』 전반부, 특히 「막북행정록」과 「태학유관록」중 일부분을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열하일기』의 전반부는 일기체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현대적인 의미의 일기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일기체 양식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사적인 고백, 즉 글쓰기 주체의 개인적인 심정을 비밀스럽게 기록한 비망록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중국에 가서 자신이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서술하기 위한 일종의 형식적 장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지원 개인이 ‘나’를 서술자로 하여, 그날 있었던 일 혹은 그날 보고 생각한 것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일기체 서술의 기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가 일기체 형식의 글에 주목하는 이유는 일기체 서술이 가지는 특징, 즉 서술자인 일인칭 ‘나’가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쓰는 글이라는 점, 또 경험과 서술이 시간적으로 엄격하게 분리된다는 점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서술자인 ‘나’가 자신의 경험 내용을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되새기면서 서술한다는 서술 상황 때문이다.<sup>1)</sup> 이 시간적 거리는 경험의 ‘재구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건이다.

『열하일기』 중의 일기체 서술 부분은 현지에서 얻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되 이를 철저히 재구성한 글이라 한다. 그 방대한 분량이 말해 주듯이 단시일에 저술된 것이 아님은 물론, 일단 탈고된 후에도 작자에 의해 누차 수정·보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sup>2)</sup> 얼마동안 집필했으며, 그리고 몇 차례에 걸쳐 수정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본고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박지원 자신이 ‘나’라는 서술자를 내세워 서술한 것이라는

1) 이것은 넓게 보면 글쓰기 일반의 특성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일기체 서술의 경우 이 특성은 보다 수비밀관하게 나타난다.

2)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pp. 18-21.

점, 경험과 그것의 서술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 시간적 거리 속에서 박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좀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이다. 본고가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시간적 거리 속에서 연암이 자신의 경험 내용을 어떠한 글쓰기 방식으로 재구성했는가 하는 점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프란츠 슈탄첼이 논의했던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sup>3)</sup>의 개념을 인용하고자 한다. 슈탄첼에 의하면 일인칭 서술자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글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 사이의 긴장”이라고 한다. 그 긴장은 “경험하던 그 당시와 지금 현재의 서술행위 사이에 놓여 있는 시간적 간격, 즉 자아의 경험과 그 뒤에 그 자아가 회고하면서 행하는 서술 사이에 놓여 있는 시간”의 간격에서 유래한다.<sup>4)</sup>

준자서전적 소설의 경우, 즉 일인칭 인물이 후회·개심 또는 통찰을 통하여 일종의 변화를 거치고 난 언후에 비로소 그들의 인생을 서술하는 경우 이러한 특성은 보다 잘 드러난다. 그런데 박지원의 경우, 그 시간적 거리는 준자서전적 소설에 비해 매우 짧다. 특히 일기 형식의 글일 경우 그 시간적 거리는 하루가 되며, 이후에 가필하거나 수정했다 하더라도 그 거리는 준자서전적 소설에 비해 현저히 짧다. 그러나 급격한 인생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도 역시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 사이의 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다.<sup>5)</sup>

본고는 이상을 토대로 하여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의 경험 내용을 어떠한 방식을 통해 구성해내는지 살펴볼 것이다.

3) 원래 이 용어는 슈탄첼이 일인칭 소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었다. 슈탄첼에 의하면 일인칭 소설이란 “서술자가 작중세계의 인물로서 등장”하고 “그는 자기가 체험한 것이나 관찰한 것, 또는 소설 내의 다른 작중인물로부터 들은 것을 서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특성은 『열하일기』 일기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이론의 인용은 『열하일기』의 글쓰기 방식을 살펴보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4) 슈탄첼, 소설형식의 기본유형(안삼환 역), 탐구당, 1990, pp. 62-63.

5) 슈탄첼, 앞의 책, p. 63.

## II. 경험과 글쓰기

일반적으로 논의할 때, 글쓰기란 생각한 것을 종이에 옮겨 적는 것, 즉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머릿 속에 떠오르는 여러 사고를 그냥 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생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언어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sup>6)</sup>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표현’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표현’이란 “내부의 것을 외부로 나타내는 것”<sup>7)</sup>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 용어로는 외부로 나타내는 과정에서 개입하는 전반적인 ‘사고’의 과정을 문제시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표현’이라는 용어는 ‘외부로 나타내는 것’에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글쓰기’라는 용어는 ‘표현’이라는 용어를 썼을 때 간과될 수 있는 이러한 측면, 즉 ‘사고’의 측면을 보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국, 표현과 사고가 하나로 합쳐지는 영역<sup>8)</sup>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 ‘글쓰기’라는 용어일 것이다. 본고가 ‘표현’이라는 용어보다 ‘글쓰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일상 생활 속에서 무수한 경험을 한다. 그 경험은 때로 기억되지 않은 채 잊혀지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한 편의 글로 남겨지기도 한다. 글로 남기는 경우는 물론 그 경험이 유의미한 경우에 한해서이다.

많은 사상가들은 경험이 무엇보다도 시간적 구조를 갖는다는 데 주목했다. 다시 말해 경험은 직접적인 현현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고 지나간 현존으로서 단지 반성적으로만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9)</sup> 여기서 ‘반성적 포착’이란 시간적으로 이미 지나간 것을 대상화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sup>10)</sup>

6) 김대행,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선청어문』 제2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2, p. 20.

7) 김용직, 『문예비평용어사전』, 탐구당, 1985, p. 268.

8) 이에 대해서는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지식산업사, 1996), p. 434를 참조할 것.

9) 벤 매넨, 『체험연구』(신경림·안규남 옮김), 동녘, 1994, p. 57.

특히 경험을 글쓰기의 대상으로 할 때, 그 경험은 글 속에 무질서하게 나열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틀에 의해 걸러지고 다시 조망되면서 재구성되는 과정을 거친다. 여기서 '재구성'이라는 용어는 주의를 요한다. 글자 그대로의 풀이라면 '다시 구성한다'는 의미인데, 글쓰기의 경우 경험을 다시 구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제로 작용하는 것이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의 분리이다. 일반적으로 '나'의 이야기, 즉 자신의 생활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의 과정에서는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분리된다. 여기서 경험은 시간적으로 서술행위보다 이전단계에 속하며, 경험적 자아는 과거의 경험과 함께 한다. 그러나 서술은 경험 이후의 단계에 속하며 서술적 자아는 실제 글쓰기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존재한다.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양적으로 축적되면서 진행되는데, 그것은 어떤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경험적 자아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할 뿐 그것을 조직적으로 연결하거나 혹은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여유는 없다. 이에 반해 서술적 자아는 시간적으로 경험에 비해 이후의 단계에 속함으로써 경험 내용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적 거리이다. 이 시간적 거리에 의해 '나'의 경험을 대상화시켜 볼 수 있는 심리적 거리가 발생한다. 그리고 이 심리적 거리에 의해 서술적 자아는 언어행위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관점에서 읽어내고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여유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별개의 주체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것은 하나의 주체이며, 다만 "두 개의 자아 사이의 분리는 오직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11)진다. 따라서 '서술적 자아'는 글을 쓰는 순간에만 존재하게 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두 자아로의 분리는 글을 쓰는 순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10) '반성적 포착'의 성격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할 것임.

11) 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 The Harvester Press, 1984, p. 210.

### Ⅲ. 『열하일기』에 나타난 경험의 재구성 방식

대상 텍스트는 「막북행정록」의 8월 6일 일기의 일부분과 「태학유관록」의 8월 11일 일기의 일부분을 택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먼저 텍스트를 소개하기로 한다.

<8월 6일 일기 중에서>

(가) 내 먼저 밀운성에 이르렀는데 길 가의 물이 벌써 말 배에 닿았다. (중략) 이제 이 고을에서 우리 일행의 숙소로 정해진 곳은 관묘(關廟)인데, 지현은 문까지 와서 곧 돌아가고 관묘인즉 인마를 들일 수는 있으나 사신이 거절할 곳은 없었다. 이 때 밤이 깊어서 집집마다 문을 닫아 잠갔으므로, 오림포가 백 번 천 번 두드리고 부르고 한 끝에 겨우 나와서 웅대하는 이가 있으니 그는 곧 소씨(蘇氏)의 집이었다. 이 고을 아전으로서 집이 훌륭하기가 행궁이나 다름없다. 그 주인은 이미 죽고 다만 열 여덟 살 나는 아들이 있는데, 눈매가 청수하여 속세의 풍상을 겪지 않은 사람 같다. 정사가 불려서 청심환 한 개를 주니 그는 무수히 절하나 몹시 놀라서 떨리는 빛이 있다.

(나) 이에 마침 잠이 들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어 나가보니, 사람 지껄이는 소리와 말 우는 소리가 요란한데 모두 생전 처음 듣는 소리요, 금기야 문을 열자 벌떼처럼 뜰에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어디 사람들인가. 이른바 조선 사람이라고는 이 곳에 온 일이 없으므로 북로(北路)에서는 처음 보니, 그들은 아마 안남(安南) 사람인지 또는 일본(日本)·유구(琉球)·섬라(暹羅) 사람인지 분간하지 못하겠다. 뿐만 아니라, 그 쓴 모자는 둥근 테가 몹시 넓어서 머리 위에 검은 우산을 받은 것 같으니, 이는 처음 보는 바라, 이 무슨 것인가 이상하다. 그 입은 도포는 소매가 몹시 넓어서 너풀거리는 것이 마치 춤추는 듯하니, 이 또한 처음 보는 바라, 이 무슨 옷인지 이상하다. 그 말소리도 혹은 “남남”하고 혹은 “니니” 또는 “각각”하니 이 역시 처음 듣는 소리라, 이 무슨 소리인지 이상하다. 처음으로 보면 비록 주공(周公)의 옷가이라도 오히려 놀라울 것이거늘, 하물며 우리 나라 그것의 제도가 몹시 크고도 고색이 창연할까보나. 그리고 사신 이하의 복장이 모두들

달라서 역관들의 복장, 비장들의 복장, 군뇌들의 복장이 각기 따로따로 되어 있고, 역졸(驛卒)·마두 배는 맨발 벗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는 얼굴은 햇볕에 그을리고 옷은 헤어져서 엉덩이를 가리지 못하였으며, 왈자하게 지껄거리며 대령하는 소리는 너무도 길게 빠니, 이 모두 처음이라, 이 무슨 예법인지 이상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한 나라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모르고 아마 남蠻(南蠻)·북적(北狄)·동이(東夷)·서융(西戎)들이 함께 제집에 들어온 줄로 알았을 것이니, 어찌 놀랍고 떨리지 아니하리오. 이는 비록 백주에라도 낮을 잃을 것이거늘, 하물며 아닌 밤중에서리요. 비록 깨어 앉았어도 놀라울 것이거늘 하물며 잠결에서리요. 또 더군다나 열 여덟 살 약관(弱冠)의 어린 사내라. 비록 세상 일을 싫도록 겪은 어른 살 노인일지라도 필시 놀라서 와들와들 떨며 졸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余乃先至密雲城, 道中水, 已沒馬腹矣, ……(중략)…… 時夜已深矣, 家家關門, 烏林哺百叩千喚, 始有開門出應者, 乃蘇姓家也, 本縣吏目而家舍侈麗, 無異行宮, 縣吏已歿, 獨有十八歲男子, 眉目清秀, 類不風蠶者, 正使招給一丸清心則, 無數叩拜, 有驚怖戰掉之狀, 蓋方其睡際, 有叩門者, 人喧馬鳴, 想應初聞之異聲, 及其開門則蜂擁盈庭者, 是何等人也, 所謂高麗無因而至此則, 北路之所初見也, 想應莫辨安南日本琉球暹羅, 第其所著帽子, 圓簷太廣, 頂張黑率, 初見矣, 是何冠也, 異哉所服袍子, 袖袂廣闊, 翩翩欲舞, 初見矣是何衣也, 異哉, 其聲或喃喃呢呢或闐闐, 初聞矣, 是何語也, 異哉, 今人初見則, 雖周公之衣冠, 勢所驚異, 況我東之制甚偉且古乎, 然而自使臣以下, 服著各殊, 有譯官一隊服著, 有裨將一隊服著, 有軍牢一隊服著, 而駟卒馬頭輦, 無不跣足袒胸, 面貌焦枯, 布袴綻裂, 不掩臀腿, 喧嘩擾攘, 聲諾太長, 初見矣, 是何禮也, 異哉異哉, 彼必不識同國同來, 想應分視南蠻北狄東夷西戎都入渠家, 安得不驚怖戰掉, 雖白晝愴怳矣, 況深夜乎, 雖醒坐, 駭惑矣, 況睡際乎, 奚特十八歲弱冠穉男也, 雖八十歲飽閱老翁, 定然驚怖, 而顛顛以卒矣)

<8월 11일 일기 중에서>

한 과실점에 들렀다. 마침 새로 난 과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노전(老錢) 일백으로 배 두 개를 사가지고 나오니, 맞은편 술집의 깃대가 현함 앞에 필력이고, 은호(銀壺)·주병(酒瓶)이 처마밖에 너울너울 춤을 춘다.……

나는 발걸음 가는 대로 다락 위로 올라가니, 층층대가 열둘이었다. 탁자를 사이에 놓고 교의에 앉아 혹은 서넛, 혹은 대어섯 사람들이 끼리끼리 둘러 앉았는데, 모두 몽고 회자(回子) 들이요, 무려 수십 패였다. 몽고 사람의 머리에 쓴 것은 마치 우리 나라 쟁반 같고, 모자가 없으며, 그 위에는 양털로 꾸미고 누렇게 물들였다. 혹은 갓을 쓴 자도 없지 않으나, 그 모양은 우리 나라 전립과 같은데, 혹은 등으로 하고, 혹은 가족으로 하여 안팎에 금을 칠하고, 혹은 오색 빛깔로 구름무늬 같은 것을 그렸다. 모두 누른 옷에 붉은 바지를 입었고, 회자는 대체로 붉은 옷을 입었으나, 또한 검은 옷도 많았다. 붉은 전(氈)으로 고깔을 만들어 썼으나, 테두리가 너무 넓어서 다만 앞뒤에 차양을 달았을 뿐, 그 모양이 마치 돌돌 말린 연잎이 물 속에서 갓나온 것 같고, 또 약을 가는 쇠 연(研)과 같이 두 끝이 뾰족하여 가볍고 부박해서 우스꽝스러워 보인다. 내가 쓴 것은 병거지 같이 생긴 것으로, 은으로 술을 새기고 꼭지에 공작 깃을 꽃았으며, 턱을 수정 끈으로 매었으니, 두 오랑캐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중략) 중국의 술 마시는 법이 매우 암전하여서, 비록 한어음에라도 반드시 데워 먹을 뿐더러, 심지어 소로(燒露)라도 역시 끓이며, 술잔은 작기가 은행알만한데도 오히려 이에 대어서 조금씩 마시고, 탁자 위에 남겨 두었다가 때때로 다시 마시며, 단번에 쭈욱 기울이는 법이 없고, 되들도 이와 같아서, 세속에서 이른바 큰 종지나 사발에 따라 마시는 일은 아주 없었다. 내가 찬 술을 달래서 넉 냥쯤을 단숨에 마신 것은, 이것으로 저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담한 척하려 함이니, 이는 실로 겁장이 짓이요, 용기가 아니었다. (入一菓肆，時新者蝟積如邱，以老錢一陌，買兩梨而出，對樓酒旗，飄風檻前，銀壺花瓶。舞勺檯外，… … 余信步而上則，胡梯十二級矣，圍卓坐椅者或三四或五六，皆蒙古回子而無慮數十對，蒙古所戴，如我東錚盤而無帽，上施羊毛而染黃，或有著笠者，制如我氈笠，而或藤或皮，表裏塗金，或以五采錯畫雲物，皆黃衣朱袴，回子衣朱亦多黑衣，以紅氈作弁，以帽子太長，只有南北兩簷，形如出水卷筒，又如藥鐵，兩端尖銳輕佻可笑，余所著笠，如氈笠飾以銀懸孔雀羽，額結水精纒，彼兩虜眼中以爲如何，… … 大約中國飲法甚雅，雖盛夏，必湯飲，雖燒露亦湯，杯如杏子，掛齒細呷，留餘桌上，移時更呷，未嘗健倒，諸胡虜飲政大同，俗所謂大鍾大椀，絕無飲者，余叫斟生酒，一吸四兩，所以畏彼，特大膽如是，真怯而非勇也)(밀줄 - 인용자)



## 1. '나'를 바라보는 또다른 시각의 설정

첫 번째 글은 박지원 일행이 열하로 가는 도중, 밀운성에서 하룻밤 묵기 위해 숙소를 찾으면서 일어났던 일을 쓴 것이다. 이 글은 크게 두 부분, 즉 숙소를 찾기까지의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부분과, 숙소를 찾고 난 후 그 집 아들인 중국청년과 대면했을 당시의 상황을 드러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막북행정록」에서 (나)글은 경험적 자아의 경험 내용 중에서 서술적 자아에 의해 특별히 선택된 부분이다. 숙소를 찾는 전체 경험 중에서 중국청년과의 첫 대면은 한 순간 혹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서술적 자아는 경험의 개관보다 더 긴 길이의 서술을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태학유관록」 또한 그날 하루의 경험 중에서 특별히 서술적 자아에 의해 선택된 부분이다.

(가)에는 박지원 일행이 밀운성에 도착하여 환영을 받았다는 것, 하룻밤 머무러려 하는데 사신이 머무를 곳이 없어 숙소를 찾으러 다닌 일, 숙소를 찾다가 만난 소씨 집안의 아들인 중국청년에 대한 첫 인상 등이 서술되어 있다. 한밤중에 잠잘 곳을 찾기 위해 이집 저집 문을 두드리니 겨우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열 여덟 살 난 중국 청년이었다. 사정을 말하고 청심환 한 개를 주었더니 무수히 절은 하지만 얼굴은 몹시 놀라서 벌리는 빛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개략적이고도 평이한 서술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박지원은 자신들 일행을 맞이한 중국 청년이 몹시 놀라고 떨었던 데에 머무른다. 그리고 그가 왜 그리 놀라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그 생각의 결과가 (나)에 나타나 있다.

(나)에서 박지원은 한밤중에 갑자기 제 집으로 들이닥친 조선 사행을 자다가 열결에 맞게 된 중국 청년의 눈을 빌어 자신들 일행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중국 청년의 눈으로 볼 때 자신들의 모습은 한 마디로 “이상하다(異哉)”는 것이다. 중국 청년의 눈에는 조선 사람들의 등그런 것

양태도 이상하고 도포 소매가 몹시 넓은 것, 그리고 그들의 언어가 모두 괴이하다. 박지원은 그 중국 청년이 조선 사람들에 대해 “한 나라 사람이 함께 온 것을 모르고 아마 남만, 북적, 동이, 서용들이 함께 제 집에 들어 온 줄로 알았을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글(가)에서 글(나)로의 변화인데, 그 변화의 요점은 ‘시각의 변화’이다. 속소를 찾으면서 일어났던 경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글(가)의 내용은 박지원의 시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글 (나)에서 갑자기 시각은 중국 청년의 눈으로 변한다. 중국청년의 눈으로 박지원 일행의 모습을 보고있는 것이다. 중국 청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들의 모습은 ‘오랑캐’로까지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은 결국 자신과 그 일행의 모습을 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시각으로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친숙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낯선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자신에 대한 또 다른 일면을 발견하고자 시도하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그 행위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관점에 따라서는 매우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심지어 ‘남만·북적·동이·서용’ 같은 오랑캐로 보일 수도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자신들의 모습이 오랑캐로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 보아 충격적인 시술이 아닐 수 없다.

물론, 그 청년이 놀라는 모습을 보고, 처음보는 자신들의 모습이 이상해서 그럴 것이라는 추측을 경험의 순간에 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나’의 관점에서 타인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글에서는 ‘타인’의 관점을 통해 ‘나’ 혹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의 형식의 차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차원으로까지 이어진다.

「태학유관록」의 8월 11일 일기에서도 이런 특성은 드러난다. 몽고인과 위구르인들이 주로 술을 마시는 열하의 한 술집에서 바라본 그들의 옷모양이 박지원에게는 몹시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그러나 이내 “내가 쓴 것은 병거지같이 생긴 것으로, 은으로 술을 새기고 꼭지에 공작 깃을 꽂

왔으며, 턱을 수정 끈으로 매었으니, 두 오랑캐의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sup>12)</sup>라고 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타인의 시각으로 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자신이 두 오랑캐의 모습을 우스꽝스럽다고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자신의 모습도 우스꽝스러워 보일 것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의 술 마시는 법과는 달리 “찬 술을 달래서 녀 낭종을 단숨에 마신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담한 척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은 “실로 겁장이 짓이요, 용기가 아니었다”고 한 데서도 이러한 특성은 드러난다.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중국인의 관점, 상세하게 말하면 ‘중국의 술 마시는 법’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다. 여기서 ‘중국의 술 마시는 법’과 관련된 내용은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눈을 설정하기 위해 서술적 자아에 의해 의도적으로 선택된 부분이다. 이렇듯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설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제를 마련할 수 있다.

이 글들에서 특징적인 것은 자신의 경험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의 문제이다. 엄밀히 말해 이 글에 서술된, 자신과 그 일행을 바라보았던 중국 청년의 눈 혹은 자신의 술마시는 모양을 바라보는 두 오랑캐의 눈과 중국인들의 눈은 진짜 중국 청년 혹은 진짜 몽고와 위구르·중국 사람들의 눈이 아니다. 그것은 서술적 자아에 의해서 설정된 ‘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엄밀하게 말해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서술적 자아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기 위해 설정한 일종의 형식적 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서술적 자아는 글쓰기 행위 속에서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설정한 것이다.

박지원은 “저 아닌 남이 되어 저를 보아야만(以非我觀我) 저도 비로소 다른 물건과 다른 바 없음을 알 수 있을 것(而我遂與萬物無異)”<sup>13)</sup>이라고 했다. ‘나(我)’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각이

12) 민족문화추진회 역, 『열하일기』, p. 365.

13) 민족문화추진회 역, 『열하일기』, p. 302.

필요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의 참모습을 보려는 ‘비아’의 모습은 6일의 일기에서 중국 청년의 시각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또 박지원은 ‘물(物)에 나아가 나를 보면 나 역시 물(物)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물(物)에 바탕해서 자기 몸을 돌보아 구하면 만물(萬物)이 나에게 갖추어진다(即物而視我亦物之一也, 故體物而反求諸己則 萬物皆備於我)’고 했다. 이것은 다른 사물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도 역시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사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그러한 시각을 가질 때 비로소 만물을 취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을 서술한 대목이다.

## 2. 경험적 자아와의 반성적 거리 확보

자신을 바라보는 ‘타인의 눈’ 혹은 다른 관점이라는 형식적 장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또 어떤 재구성 방식을 유도하는가?

하루의 일상을 끝낸, 혹은 일정 기간의 경험을 경과한 서술적 자아는 눈에 띄지 않게 내적으로 성숙하거나 혹은 보다 나은 통찰력을 지닐 수 있다. 내적 성숙을 통해 보다 나은 통찰력을 지닌 경우,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 사이에는 긴장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글쓰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 사이에 형성된 긴장 상태는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그것을 해결하고 심리적 평형 상태로 조절되기도 한다. 경험적 자아에 대해 만족을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후회나 아쉬움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후회나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은 경험적 자아와 갈등이 생겼기 때문이고, 그 갈등을 해결했을 경우 서술적 자아는 심리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sup>14)</sup>

14) 『열하일기』를 진제적으로 볼 때, 박지원의 글쓰기에서 서술적 자아는 대부분 경험적 자아의 행동이나 사고를 좀더 논리화하고 합리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역

글쓰기의 대상이 되는 경험적 자아에게서는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서술적 자아는 자신의 경험을 자기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대상화함으로써 일정한 거리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위의 글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설정했을 경우, 그 거리는 보다 잘 드러난다. 자신의 경험이 대상화되는 순간, 즉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를 바라보는 순간, 경험은 서술적 자아에게서 벗어나 낯선 것이 되고 그 낯설음은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거리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거리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막북행정록」에서 설정된 중국 청년의 시각은 박지원으로 하여금 자신도 타인에게 '오랑캐'로 보일 수도 있다는 깨달음을 가져왔다. 타인의 시각을 매개로 한 심리적 거리에 의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일상적인 모습과 차별짓고 새롭게 재구조화하면서 나아가서는 “도덕적 통찰”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자기 반성(self-reflection)”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이 글에서 중국 청년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그럴 때 자기자신의 모습을 반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박지원이 몽고인과 위구르인들이 술을 마시는 한 술집에 우연히 들어갔던 경험을 서술하고 있는 「태학유관록」에서도 서술적 자아는 자기 반성의 글쓰기를 하고 있다. “그들의 생김생김이 사납고도 더러워서, 올라온 것이 후회가 되기는 했지만 이미 술을 칭찬지라” 박지원은 녀 낭 어치의 술을 그들의 관습대로 데워서 조금씩 조금씩 마시지 않고 차가운 채로 그냥 마셔버린다. 이것은 그들을 놀라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이런 경험적 자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술적 자아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서술하고 있다. 자신이 찬 술을 달래서 녀 낭 어치를 단숨에 마신

---

사적 사실, 혹은 권위있는 논거와의 결함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검증하고 한층더 공고히 함으로써 심리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5) 이 내용에 대해서는 Bernstein, Self-knowledge as Praxis, 『NARRATIVE IN CULTURE』, 1991, pp. 65~68 참조.

것은 그들을 두렵게 하기 위하여 “일부러 대담한 척하려 함이니, 이는 실로 겁장이 짓이요, 용기가 아니었다”고 토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적 토로는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분리시켜 스스로와 대면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생활 세계와 거리를 두게 하고, 우리의 사려깊은 열증을 직접적인 행동의 구체적 상황에서 분리시키고, 우리의 체험적 이해를 구체적인 관련들로부터 추상화하고 객관화한다. 이런 의미에서 글쓰기는 ‘텍스트적 반성’을 수반한다고 볼 수 있다.<sup>16)</sup> ‘텍스트적 반성’이란 텍스트를 통한 반성, 즉 글쓰기를 통한 반성을 의미한다. 서술적 자아와 경험적 자아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 거리는 대부분 반성적 거리로 나타난다.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 사이에 설정하는 반성적 거리는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의 시간적 밀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시간적 거리를 없애버릴 경우, 서술적 자아의 글쓰기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글로 화할 위험이 크다. 단지 일상사를 그대로 쓰기만 하는 경우의 글쓰기에 이에 해당한다.

#### IV. 자기 반성적 글쓰기와 국어교육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적 거리는 서술적 자아로 하여금 경험적 자아에 대해 반성적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을 구실을 한다.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일인칭 글쓰기에서 반성의 내용이 나타날 경우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거리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

16) 앞의 책, p. 172

경험을 서술하는 서술적 자아의 언어 행위는 경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이 아니라 회고적인 해석을 통해 하나의 구성물을 만드는 작업이다.<sup>17)</sup> 언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한 회고를 통해 또 다른 구성물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지나간 어떤 경험을 다시 회고할 때, 그 당시의 경험대로 완전하게 재현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필연코 재해석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어떤 특정의 경험을 선택하는 것, 그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한 것들 가운데 특정의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 그 선택한 것을 서술적 자아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반성적 거리를 형성하는 것, 이런 과정을 통해 경험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진다.

이렇듯 일상의 경험이 글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회상을 통한 재경험’<sup>18)</sup>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글이란 있는 자신의 경험 그대로를 무원칙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술적 자아의 인식 속에서 선택되고 조직된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것은 보통 회상을 통한 재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의 경험을 회상하는 것은 지나간 순간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적 자아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 일정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진행되는 ‘재경험’은 이미 서술적 자아의 가치평가가 개입된 경험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글쓰기는 결국 한 편의 ‘글’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만 ‘글’ 이상을 만들어 낸다. 바로 자기자신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만들거나, 형성해 나가는 작업이며, 사물의 깊이를 재고, 자신의 깊이를 인식한다는 것이다.<sup>19)</sup>

이것은 ‘자기 반성적 글쓰기’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글쓰기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자기 반성적 행위에는 무엇이 연관되어 있는가? 우선 자기 반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자. 자기 반성(self-reflection)의

17) Bernstein, Self-knowledge as Praxis, 『NARRATIVE IN CULTURE』, 1991, p. 65  
참조

18) 슈탄첼, 앞의 책, p. 60.

19) 벤 배넌, 앞의 책, p. 168.

행위는 “자신에 대한 의미있는 정보를 얻는 것”<sup>20)</sup>에서 더 나아간다. 그것은 “자신을 차별짓고 재구조화하고 재구성하는 의지와 관련”<sup>21)</sup>되는 것이면서도 여기에서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도덕적 통찰’과 관련된다. “자기 삶의 사건을 재서술하는 행위는 도덕적 작업”<sup>22)</sup>인 것이다.

글을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 혹은 자아를 객관화시키는 작업이며, 글을 쓰는 과정에서 도입하는 타인의 시각 설정 등은 이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좀더 객관화시켜 바라보려는 노력과 통한다. 글쓰기 과정에서 한 사람만의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식을 한 사람의 의식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의식으로 움직여 다니면서 다양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러 사람의 관점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객관적 현실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sup>23)</sup> 갑작스런 시각의 이동은 가까운 곳에 완전히 다른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sup>24)</sup> 이런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나’를 좀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자신에 대한 ‘도덕적 통찰’을 동반할 수 있다. 「막북행정록」과 「태학유관록」에서 보여준 박지원의 글쓰기는 이러한 특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그동안 국어교육에서 ‘쓰기’와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의 논의에 본고는 글쓰기 주체의 경험을 대상으로 하는 글쓰기의 한 방식을 첨가하고자 한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자신의 생활 경험을 대상으로 글쓰기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의 생활 경험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는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분리된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서술상황의 문제와 관련된다. 특정의 글쓰기에는 특정의 서술 상황이 필요하며,

20) Bernstein, 앞의 글, p. 67.

21) Bernstein, 앞의 글, p. 68.

22) Bernstein, 앞의 글, p. 69.

23) 에리히 아우얼 바하, 『미메시스』 근대편(김우창·유종호 역), 민음사, 1994, pp. 252-253 참조.

24) 채트먼, 『이야기와 남론』(한용환 역), 고려원, p. 257.



서술 상황은 글쓰기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조성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일인칭 서술자 '나'가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글을 쓸 경우, 자신의 경험을 대상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며, 그 방식은 글쓰기의 순간에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분리된다는 점, 그 분리를 전제로 경험적 자아를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화의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자신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설정하는 것, 혹은 다른 시점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의외로 평소에는 인식할 수 없었던 다른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경험적 자아에 대해 반성적 거리를 확보하는 것이다.

## V. 맺음말

본고는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나타난 글쓰기를 '경험의 재구성 방식'에 초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열하일기』는 박지원이 열하를 구경하면서 겪은 경험을 서술한 것으로, 자신의 생활 속에서 얻은 경험을 글쓰기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일인칭 '나'가 서술자인 글에서 자신의 경험을 대상으로 글을 쓸 때, 그 경험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본고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일기체 형식의 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일기체 형식의 글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언어 행위의 순간에 경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가 분리된다는 점이다. 일기체 형식의 글에서는 지나간 경험을 다시 회상하는 순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경험을 하는 과거의 자아와 경험적 자아를 대상화하면서 언술 행위를 하는 서술적 자아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막북행정록』은 이러한 특성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실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시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밀운성에 도착해서 숙소를 찾기 까지

의 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박지원의 시각으로 서술하다가, 갑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중국 청년의 시각으로 서술된다. 박지원의 시각에서 갑자기 중국 청년의 시각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른바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설정하고 있는데, 시점을 변화시킴으로써 혹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타인의 시각을 설정함으로써 얻는 효과는 일상적으로 알고 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좀더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그것은 바로 글쓰기의 순간에 경험적 자아를, 시간적 거리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거리를 통해 반성적으로 바라보면서 생기게 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태학유관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막북행정록」에서 처럼 시점의 변화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역시 자신의 모습을 타인의 시각을 통해 반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반성적 태도는 자신에 대한 ‘도덕적 통찰’로 이어진다.

박지원의 『열하일기』를 통해 밝혀낸 이상의 논의를 국어교육에서의 글쓰기 교육과 연결시킬 수 있다. 글쓰기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을 설정하는 것, 즉 언어 행위 속에서 서술적 자아가 경험적 자아인 ‘나’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 형식적 장치로 타인의 시각을 설정하는 것, 그 시각 속에서 자기 자신과 반성적 거리를 유지하는 태도 등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글쓰기 주체로 하여금 새로운 인식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제까지의 논의는 일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생활 경험을 대상으로 글을 쓰는 경우에 더 적합할 것이다.<sup>25)</sup>

박지원의 『열하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여년 전의 글임에도 불구하고

25) 슈탄첼에 의하면, 일인칭 서술자가 이야기의 중심을 이루는 글에서 의미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체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 사이의 긴장’인데, 일인칭 서술자가 사건에 대하여 외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글들의 일인칭 서술상황이 특히 보여주고 있는 묘사의 특징은 ‘시각화’와 ‘매개화’라고 한다. 슈탄첼, 앞의 책, pp. 60-61 참조.

하고 오늘날의 글쓰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점을 이동시킴으로써 새로운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있었던 박지원의 글쓰기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동엽, 『열하일기 연구』, 일지사, 1988.
- 김대행, 고전표현론을 위하여, 『선청어문』 제20집,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992.
- 김명호, 『열하일기 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0.
- 조동일, 『한국의 문학사와 철학사』, 지식산업사, 1996.
- 에리히 아우얼 바하, 『미메시스』 근대편(김우창·유종호 역), 민음사, 1994.
- 이종주, 「열하일기」의 서술원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석사논문, 1982.
- 슈탄첼, 소설형식의 기본유형(안삼환 역), 탐구당, 1990.
- 채트먼, 『이야기와 담론』(한용환 역), 고려원,
- Bernstein, Self-knowledge as Praxis, 『NARRATIVE IN CULTURE』, 1991.
- Bernstein, 『The Philosophy of the Novel』, The Harvester Press, 1984.